



# 전주매일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 군산조선소, 9년의 침묵 깨다

### 에코프라임마린퍼시픽-HD현대중공업, 자산 양수도 합의각서 체결 조선소 기능 확대, 완성 선박 직접 건조... 전북 조선산업 부활 기대

9년 가까이 멈춰 있던 군산조선소가 새 주인을 맞아 완전 정상화를 향한 본격적인 발걸음을 내딛었다. 장기간 침체됐던 전북 조선산업의 부활과 지역경제 회복에 대한 기대도 함께 커지고 있다.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지난 13일 전북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에코프라임마린퍼시픽과 HD현대중공업이 이날 서울 에코프라임마린퍼시픽 본사에서 군산조선소 자산 양수도를 위한 합의각서(MOA)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구매 대형 자동차 설비 및 스마트 조선소 기술 지원 등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군산조선소가 안정적인 물량을 확보하고 생산 체계를 고도화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에코프라임마린퍼시픽은 현재 운영 중인 블록 생산 규모를 유지하면서 공정과 생산 동선 설비 등을 전반적으로 정비해 단계적으로 신조 선박 건조에 나설 계획이다. 장기적으로는 군산조선소를 서해권 조선산업의 핵심 거점으로 육성하겠다는 전략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대선 유세 과정에서 "정부가 역할만 제대로 하면 군산 조선업은 반드시 살아날 수 있다"며 조선산업 재건 의지를 밝힌 바 있다.

이번 인수 합의가 새 정부 출범과 맞물리면서 군산조선소의 완전 정상화로 이어질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전북자치도는 앞으로 군산조선소를 K-조선의 핵심 거점으로 성장시키기 위해 중앙정부와 협력해 인력 양성, 세제 지원, 고용 보조 등 다양한 행정·재정 지원을 이어갈 계획이다.



지난 13일 순창군 발효미생물산업진흥원에서 더불어민주당 현장 최고위원회의가 열린 가운데, 정청래 당대표와 한병도 원내대표, 윤준병 전북특별자치도당위원장 등 참석자들이 회의를 하고 있다.

## 민주당 지도부 "전북 미래산업 지원 약속"

### 순창서 현장 최고위원회의 현대차그룹 새만큼 투자 타운홀미팅 등 중심으로 전북 정책 지원 방안 논의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지난 13일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발효미생물산업진흥원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전북 미래 산업 지원과 민생 현안을 점검했다.

이날 회의에는 정청래 당대표와 한병도 원내대표를 비롯해 황형선·이성운·문정복·박지원·박규환 최고위원, 이재명 민주연구원장, 권형영 조

직부총장, 강준원 수석대변인 등이 참석했다. 윤준병 전북도당 위원장과 안호영 국회의원, 김관영 도지사, 최영일 순창군수 등 지역 관계자들도 함께했다.

회의에서는 현대자동차그룹의 새만큼 9조원 투자 협약과 전북 타운홀미팅에서 제기된 미래 산업 육성 전략 등을 중심으로 전북 정책 지원 방안이 논의됐다.

지도부는 AI·수소·로봇 등 첨단 산업을 기반으로 전북이 미래 산업 중심지로 도약할 수 있도록 당 차원의 지원을 약속했다.

또 전북이 농생명·첨단산업·신재생에너지 등을 기반으로 자립형 광역경제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뒷

받침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회의 후 지도부는 장 담그기 체험을 하며 전통 발효식품 산업 현장을 둘러보고 주민들과 소통했다.

정청래 당대표는 "새만큼 투자와 전북 타운홀미팅 논의가 전북 경제의 새로운 전환점이 되고 있다"며 "전북도민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지속 가능한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윤준병 전북도당 위원장은 "현대차그룹 투자와 정부 비전 발표로 전북의 '삼중 소외' 갈등이 조금씩 풀리고 있다"며 "민주당이 전북에서 압승해 이러한 기운이 전국적 승리로 이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관련사진 3면·관련기사 7면)

이번 합의는 군산조선소를 넘기는 촉과 인수하는 촉이 기본적인 의향을 공식 문서로 확인한 것으로, 향후 실사(현황 점검)를 거쳐 최종 계약이 체결될 예정이다.

군산조선소 인수를 추진하는 에코프라임마린퍼시픽은 국내 대표 조선사인 HD중공업의 모회사로, 조선 설계와 건조 기술을 기반으로 군산조선소를 신조 선박 건조가 가능한 완전한 조선소로 발전시키겠다는 구상을 갖고 있다.

현재는 선박 블록 생산에 머물러 있는 군산조선소의 기능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완성 선박을 직접 건조하는 조선소로 정상화하겠다는 계획이다.

HD현대중공업도 군산조선소 정상화를 위해 적극적인 협력에 나선다. HD현대중공업은 향후 3년 동안 자사의 선박 블록 제작 물량을 군산조선소에 지속적으로 발주하기로 했으며, 세계 최고 수준의 설계 용역 제공과 원자재

구매 대형 자동차 설비 및 스마트 조선소 기술 지원 등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군산조선소가 안정적인 물량을 확보하고 생산 체계를 고도화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에코프라임마린퍼시픽은 현재 운영 중인 블록 생산 규모를 유지하면서 공정과 생산 동선 설비 등을 전반적으로 정비해 단계적으로 신조 선박 건조에 나설 계획이다. 장기적으로는 군산조선소를 서해권 조선산업의 핵심 거점으로 육성하겠다는 전략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대선 유세 과정에서 "정부가 역할만 제대로 하면 군산 조선업은 반드시 살아날 수 있다"며 조선산업 재건 의지를 밝힌 바 있다.

이번 인수 합의가 새 정부 출범과 맞물리면서 군산조선소의 완전 정상화로 이어질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전북자치도는 앞으로 군산조선소를 K-조선의 핵심 거점으로 성장시키기 위해 중앙정부와 협력해 인력 양성, 세제 지원, 고용 보조 등 다양한 행정·재정 지원을 이어갈 계획이다.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이번 합의각서 체결은 군산조선소 정상화를 향한 매우 의미 있는 첫걸음"이라며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전북 경제를 살려야 한다는 절박함으로 꾸준히 노력해 왔다. 군산조선소가 대한민국 조선산업을 떠받치는 핵심 거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대선 유세 과정에서 "정부가 역할만 제대로 하면 군산 조선업은 반드시 살아날 수 있다"며 조선산업 재건 의지를 밝힌 바 있다.

이번 인수 합의가 새 정부 출범과 맞물리면서 군산조선소의 완전 정상화로 이어질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전북자치도는 앞으로 군산조선소를 K-조선의 핵심 거점으로 성장시키기 위해 중앙정부와 협력해 인력 양성, 세제 지원, 고용 보조 등 다양한 행정·재정 지원을 이어갈 계획이다.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이번 합의각서 체결은 군산조선소 정상화를 향한 매우 의미 있는 첫걸음"이라며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전북 경제를 살려야 한다는 절박함으로 꾸준히 노력해 왔다. 군산조선소가 대한민국 조선산업을 떠받치는 핵심 거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 전북 중심 공공의료로 인력 양성 '탄력' | 국립의전원법, 국회 복지위 통과

전북특별자치도는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국립의전원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고 지난 13일 밝혔다.

국회 보건복지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필수·공공의료 분야에 종사할 의료 인력을 전문적·인정적으로 양성할 수 있도록 국립의학전문대학원을 설립하는 내용의 '국립의전원법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추진이 탄력을 받게 됐다.

법안에 따르면 국립의학전문대학원은 대학원대학(4년제) 형태로 설립되며, 국가 재정 지원 근거를 명시했다. 선발된 학생에게는 학비 등 교육비가 지원되고, 졸업 후 공공보건의료기관 등에서 15년간 의무 복무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정부 계획상 정원은 기존 의과대학 증원과 별도로 연간 100명 규모로 운영될 예정이다.

정부는 지역·필수·공공의료 인력 양성을 위해 지역의사제 신설, 공공의

료사관학교(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및 의대 없는 지역에 의대 신설을 국정과제로 채택해 추진하고 있다. 국립의학전문대학원은 2030년 도입을 목표로, 2026년 상반기에 법률 제정 및 부지확보까지 마칠 계획이다.

지난 2018년 서남해(의대) 폐교 이후 시작된 국립의전원 설치 논의는 지역 사회의 숙원사업으로, 국립의전원이 설립되면 지역 의료 인력 부족 문제 해소와 공공의료 체계 강화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만호 기자

## 가습기살균제 피해, 20년 만에 '참사' 인정

### 민주 안호영 의원 대표발의 '특별법 전부개정안', 국회 통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안호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법 전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가습기살균제 피해를 법률상 처음으로 '참사'로 규정하고 국가의 배상 책임을 명문화한 것이 핵심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의 피해구제 중심 체계를 국가배상 체계로 전환하고, 국무총리 소속 배상심의위원회

를 설치해 국가가 직접 손해배상을 수행하도록 했다.

재원은 기업 분담금과 정부 출연금으로 조성되는 피해구제기금으로 마련된다. 또한 피해자들의 일상 회복을 위해 치료비가 보장되고 교육 지원 등 각종 지원 제도도 확대된다.

가습기살균제 피해는 발생한 지 20년, 원인이 밝혀진 지 15년이 지난 뒤에야 국가 책임과 배상 체계가 법률로 마련됐다.



2026년 1월 기준 정부가 공식 인정한 피해자는 5,971명이며, 이 가운데 1,396명이 사망했다.

한편, 이번 특별법 전부개정안은 오랜 기간 피

해자들과 함께 제도 개선을 추진해 온 안 위원장의 노력과 사회적 공감대가 결실을 맺은 것으로 평가된다. /이만호 기자

접수기간  
**2026. 4.3(금) - 4.5(일)**

**작품접수**  
접수기간: 2026. 4. 3.(금) ~ 4. 5.(일) 18:00  
접수품목: 옷칠 목공예 작품 / 같이 공예 작품  
접수처  
· 남원 - 남원시청 1층 강당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시청로 60)  
· 서울 - 서울 남원장학숙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봉로23길 13-6)  
접수방법: 직접 출품, 택배 및 우편

**기타사항**  
자세한 일정은 남원시청 홈페이지 광고문 참조

[공고문 바로가기]

# 29th

Wooden Craft Arts Competition

## 대한민국 옷칠목공예대전

최고훈격  
**대통령상**  
승격

**문의처**  
남원시 문화예술과 (063-620-6672)  
남원목공예협회 (063-631-5725)

**시상내역**  
총 47점, 시상금 총 14,000만원

상 격	훈 격	옷칠 목공예	같이 공예
대 상	대통령	4,000만원 (1점)	
금 상	문화체육관광부장관	1,500만원 (1점)	1,000만원 (1점)
은 상	국가유신참장	각 1,200만원 (2점)	700만원 (1점)
동 상	전북특별자치도지사	각 900만원 (3점)	400만원 (1점)
장려상	남원시장 / 남원시의장	각 100만원 (5점)	각 50만원 (2점)
입 선	주관 단체장	각 24만원 (25점)	각 20만원 (5점)

\* 시상 수, 시상 훈격, 시상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주최 **남원시** 주관 **남원목공예협회**

후원 **문화체육관광부** **국가유신청**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의회**